지상백고좌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대종사



본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대종사를 예방하고 법을 청했다. 이 자리에서 운경 스님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한걸음씩 여래에 가까이 가는 길"임을 설하며, 불자들에게 '자비행'을 당부했다. 사진=신중일 기자

"자비 실천하라…여래에 한걸음 가까워지리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태고종 종정예하인 운경(雲耕) 대종사에게 법문을 듣기 위해서 백련사를 찾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소재한 백련사(白蓮寺)는 한국불교태고종의 3사(봉원사, 백련사, 청련사) 중 하나로서 신라 경덕왕 6년(747) 진표율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수행도량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시점이어서 백련사에는 사명(寺名)에 걸맞게 각 전각(殿閣)과 당우(堂宇) 앞은 물론이고 경내 마당에도 각색의 연등들이 걸렸는데, 그 곱고 단아한 자태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들을 떠올리게 했다.

꽃잎이 필 때 씨방도 함께 여무는 까닭에 연꽃을 인과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연화지에 가면 이제 갓 봉오리가 맺힌 연꽃과 활짝 꽃잎이 피어난 연꽃, 이미 꽃잎이 진 연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세, 현세, 내세 등 삼세(三世)를 의미한다고 한다. 도량을 수놓은 연등들을 보면서 필자는 아득한 전생부터 니전(泥田)에 피어난 백련(白蓮)처럼 더러운 곳에 있어도 항상 청정함을 잃지 않았던(處染常淨) 수행승들이 있었기에 탐진치(貪瞋痴) 삼독심(三毒心)에 물든 중생들의 사바세계(娑婆世界)에도 깨달음의 향기가 세세생생 이어졌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백련사는 운경 스님이 설봉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한 도량이다. 그 법맥을 계승하기 위해서 운경 스님은 평생 동안 깨달음을 구하고 얻고 지켜왔다. 운경 스님은 백련사 주지 재임 시 친일파 이해승에게 뺏겼던 사찰 토지 4만7643㎡를 되찾기도 했다. 토지를 되찾고 열린 법회에서 운경 스님은 '백련사 일대 토지 봉증 발원문'을 낭독했는데 이 발원문을 듣고서 백련사의 원로스님들이 눈물을 장삼 소매로 닦았다고 한다.

당시 운경 스님은 "백련사가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근본 원력인 수행으로 정각(正覺)을 이루는 희유(稀有)한 도량이 되게 하시어 불음(佛音)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지고 세계만방에 불광(佛光)이 더욱 빛나고, 육도의 모든 중생들이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달라"고 발원했다.

필자 일행이 삼배를 올리자 운경 스님도 맞절을 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던가? 운경 스님의 수행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법체 청안하셨느냐"는 필자의 인사말에 운경 스님은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어둡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운경 스님의 대답은 〈벽암록(碧巖錄)〉 제3칙 '마대사불안(馬大師不安)'의 주석(註釋)이기도 했다. 원주 스님이 안부를 묻자 마조 스님은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라고 대답했는데, 이에 대해 찰나와 영겁이 다르지 않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에 이르면 냇물소리에서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산색(山色)에서도 부처님의 법신을 볼 수 있다는 게 운경 스님의 견해이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전국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라는 필자의 우문(愚問)에 스님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킴으로써 현답(賢答)했다.

"부처님은 시방 삼세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일체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선문염송(禪門拈頌)〉에 이르길, '미리도솔(未離兜率) 이강왕궁(已降王宮) 미출모태(未出母胎) 도인이필(度人已畢)'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에 계시면서도 이미 정반왕궁에 오셨으며 어머니 태중에 계시면서도 이미 중생을 제도하셨으니, 불생불멸(不生不滅)한 부처님 공덕은 미래세(未來世)가 다하도록 우주법계에 두루 편재(遍在)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이미 성불(成佛)하신 분이지만 사바세계(娑婆世界)에 있는 모든 중생(衆生)을 구하고자 세상에 출현(出現)하시고 시현(示現)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실체(實體)는 달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강(千江)에 비친 달처럼 부처님은 시방법계(十方法界)를 두루 비추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광명을 통해 나투시기도 하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부처님오신날 출현하시어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佛性)의 씨앗에 싹을 움트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끼어 있으면 달이 보이지 않듯이 마음이 흐리면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빛도 반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항상 맑게 해야 합니다."

운경 대종사의 회고송(懷古頌)

팔십성상(八十星霜) 여영상(如映像)
행봉불법(幸逢佛法) 각주객(覺主客)
작일역래(昨日亦來) 기내일(旣來日)
침식기좌(寢食起坐) 미미소(微微笑)

팔십여 년이 영상같이 지나갔지만
다행이 불법을 만나 주객을 알았다.
어제가 돌아오고 내일이 지나갔지만
침식의 나날 중 일어나 앉으니 실로
우습다.

부처님, 전염병 창궐 베살리 구호
재난 구제 7일 만에 역병 사라져
슬픔 나누는 것이 불자 실천 덕목

운경 스님은 이어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곳"에 대해 설명했다.

"부처님은 먼 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선, 누구나 불성(佛性)을 지니고 태어났으니 자기 자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인연, 부부의 인연으로 한 집에서 함께 웃고 울며 평생 살아가는 가족들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루 종일 합심해서 일을 하는 직장 동료들, 법회 때마다 만나서 함께 예불을 하는 법우들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같은 해를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같은 달을 보면서 잠이 드는 사해동포(四海同胞)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빈부격차도, 지위고하도 따지지 않고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만이 광대무변(廣大無邊)한 부처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것입니다."

운경 스님은 불자가 실천해야 할 최고 덕목으로 '자비행(慈悲行)'을 꼽았다.

"부처님께서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베살리를 직접 방문해 구호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베살리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우선 제자들과 함께 발우에 물을 담아와 뿌리면서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삼보에 귀의하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재난 구제에 나선 지 7일이 지나자 베살리에는 전염병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가뭄도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야말로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여래란 진리의 세계에서 왔다는 의미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한걸음씩 여래에 가까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운경 스님의 말을 듣고 나니 "어떤 사람이 무엇이 온갖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대답해라. 자비심은 진실해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신실한 생각이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이 곧 여래"라는 〈열반경(涅槃經)〉의 구절이 떠올랐다.

운경 스님은 이어 한국불교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발심을 가질 것"을 역설하면서 남허 스님을 모시고 태고종의 기틀을 다졌던 과정을 회고했다.

불교 분규 끝에 태고문손은 한국불교태고종을 정부에 등록했다. 태고종 창립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터라 남허 스님은 종단이 향후 과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남허 스님은 도별 종무원 산하에 시·군·구 분원을 조직했고,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불교중흥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중흥기원대법회'에는 무려 2만여 명이 참석해 장충체육관 안팎이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뤘다. 남허 스님은 "불자들은 최상종승(最上宗乘)을 참수(參修)하여 도생(度生)하고 성불(成佛)함을 목표로 삼고, 원융통화(圓融統和)의 종풍을 계승하여 선(禪), 교(敎), 주력(呪力), 예참(禮懺) 등 각자 근기에 맞도록 정진하며, 자(自)보다는 타(他)를 위하여 불국(佛國)을 이룩하자"고 역설했다. 불교중흥기원대법회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태고종은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수륙재를 봉행한 데 이어 보살계, 구족계, 유발 합동득도식을 차례대로 봉행했다.

"초발심을 잃지 않으셨던 남허 스님이 계셨기에 태고종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남허 스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른다면 한국불교계의 미래도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B2면에 계속